

통일부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판문점선언에 따라 개소
1년9개월만에 잿더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월부터 운영 아예 중단
김여정,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항의하면서 폭파 예고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14일에 개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소한 남북연락사무소는 1년9개월 만에 사라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같은 해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된 일종의 외교공관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담겼고 이에 따라 사무소 설치

가 추진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육로를 통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

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 등이다.

설립 후 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매주 1회꼴로 열렸지만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올 1월부터는 연락사무소 운영이 아예 중단됐다.

김 제1부장은 최근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면서 연락사무소 폐쇄와 폭파를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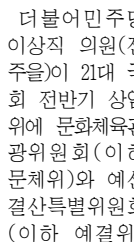
김 제1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 관련 첫 담화에서 "민간 남조선 당국이 이번엔 자기 동네에서 동쪽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해 충분히 조치를 따라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슬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 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나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 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3일에는 "말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북 국회의원들, 상임위 배정

“전북 원팀” 취지 살려 산자위 양보

민주 이상직 의원, 문체위-예결위 배정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배정됐다.

21대 국회 원구성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평가받는 전라북도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막판까지도 이상직 의원의 조선의원들을 위한 양보가 돋보인다.

이상직 의원은 당초 문체위 대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산자위를 희망했다. 하지만 '전북 원팀' 취지를 고려, 전북의원들 간에 중복되지 않고 고르게 배정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산의 신영대 의원에게 산자위를

양보, 문체위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문화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만큼 내수 경기를 진작을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사업주진이 필요하다"며,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지정 활성화, 전주형 할리우드 '전리우드' 조성, 청년벤처창업도시 및 문화컨텐츠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전북 문화도시 완성 등 대한민국 문화수도인 전주를 비롯한 전북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예결위 배정과 관련하여 "포스트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19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발전에 필요한 추경과 2021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로 농식품·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 경제의 안정 및 농촌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농해수위 위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유일한 농해수위·여가위 위원인 만큼, 전북의 농생명수산업 육성과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적 개척을 위한 속도감 있는 조지위 구성과 총사업비 변경 등의 지원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성경찬 의원 추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성경찬(고창) 의원이 당선됐다.



16일 오후 4시에(의원 총회의실) 열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한 성경찬 의원이 추대됐으며 선거관리위원직을 겸하게 된다.

성경찬 당선인은 "1991년 지방자치부활 이후 지방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과 사무가 증가하고,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도 다양화 되면서 집행기관의 규모는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은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후원회를 불허한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16일 전북도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 간담회.

소상공인 지원책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

송성환 도의회 의장,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 간담회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 임규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16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송 의장과 임원진은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는 분야 중 하나가 소상공인"이라며, "지난 2016년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 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야 한다는 제도적 한계는 있지만 지역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제도와 내용을 두루 살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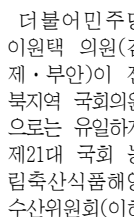
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임규철 회장은 "관련 법 제정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호상 기자

“농생명산업 육성·농산어촌 ‘활력’”

민주 이원택 의원, 농해수위-여가위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전북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제21대 국회 농

해수위(이하 농해수위) 위원 및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및 여가위 위원으로 확정되면서 종자산업 고도화와 민간육종단지 육성,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등 전라북도 농생명수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농업 특화모델 구축, 부안해상 연근해 어업분쟁 해결, 수산업 클러스터 등 이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주민에게 약속했던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들도 그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이 국회 겸임 상임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적 개최와 지방소도시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추진, 청소년 직업체험장 건립 등 지역의 여성,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로 농식품·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 경제의 안정 및 농촌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농해수위 위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유일한 농해수위·여가위 위원인 만큼, 전북의 농생명수산업 육성과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적 개척을 위한 속도감 있는 조지위 구성과 총사업비 변경 등의 지원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로 농식품·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 경제의 안정 및 농촌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농해수위 위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유일한 농해수위·여가위 위원인 만큼, 전북의 농생명수산업 육성과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적 개척을 위한 속도감 있는 조지위 구성과 총사업비 변경 등의 지원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병 의식되면 '1339' 로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